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친목 모임인 우향계 춘향제 봉행

안동권씨가 주관하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선현(先賢)의 친목 모임인 우향계(友鄉契) 548회 춘향제(春享祭)가 봉행(奉行)되었다.

5월 4일(음력 3월 18일) 오전 10시 안동시 성곡동에 위치하고 있는 우향사(友鄉祠)에서 안동

권씨, 고성 이씨, 영양 남씨, 흥해 배씨, 안강 노씨 등 5개 문중 후손 100여 명이 참석하였다. 이 자리에는 경북교육감 예비후보자인 임종식 현 경북교육감이 찾아와서 참제관(參祭官)들에게 일일이 인사를 하면서 악수를 나누기도 했다.

남태승(南泰承) 분정(分定) 집필자(執筆者)는 우향각(友鄉閣) 마루에서 현관, 제관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40여 분에 걸쳐서 분정을 하였는데 초헌관 권용주(權容柱), 아헌관 남세동(南世東), 종헌관 이승화(李承華), 축관 권오장(權五將), 잔자배중희(裨重熙)가 각각 담당하는 분정례를 마쳤다.

분정례가 끝나자 현관과 참제관들은 도포(道袍)와 유건(儒巾)을 쓰고 우향사로 자리를 옮겼다. 주회 측은 봄비에 대비하여 우향각과 우향사 마당에 대형 부스를 각각 설치, 다소 불편한 점이 있었으나 철거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기도 했다.

우향사에는 안동지역의 안동 권씨 3명, 고성 이씨 1명, 영양 남씨 4명, 흥해 배씨 4명, 안강 노씨 1명 등 모두 5개 문중 선조(先祖) 13명의 위패(位牌)를 모셔놓았다. 배중희 잔자의 집례에 따라 참제관들이 서로 마주 보면서 상음례를 한 후 세 헌관이 분향 헌작하고 권오장 축관이 축을 낭독하는 등 1시간에 걸쳐서 엄숙하게 춘향제를 봉행하였다.

춘향제가 끝나자 현관 및 제관들이 우향각 큰방과 마루 그리고 잔디밭에 부스를 설치한 곳으로 이동, 헌관들이 음복례를 한 후 모두들 도시락으로 점심 식사를 하였다.

이 자리에서 권기갑(權奇甲, 안동권씨 대종회 부회장)씨가 548년 전부터 내려오는 향리약숙(鄕里約束)을 10여 분에 걸쳐서 낭독하였다. 해마다 제례(祭禮) 주관(主官)은 5개 문중이 돌아가면서 윤번제



(輪番制)로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는 안동 권씨 부정공파가 주관하였다.

지금부터 548년 전 조선 성종 9년(1478) 시작하여 현재까지 이어 오고 있는 우향계를 기념하고 창립회원 13명의 위패를 모시기 위해 지난 2004년과 2006년에 건립한 각(閣)과 사당(祠堂)이 지금의 자리에 마련돼 있다. 우향계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선비들의 계회(契會)로 서로에게 덕업(德業)과 친목(親睦)을 도모(圖謨)하고 풍화(風化)를 밝히기 위해 결성되었다.

조선 세종(世宗)때 좌의정을 역임한 이

원(李原, 固城李氏)의 아들 이증(李增)이 안동에 낙향하여 안동 권씨, 고성 이씨, 영양 남씨, 흥해 배씨, 안강 노씨 등 5개 문중 계원 13명이 계첩(契帖)을 만들어 하나 씩 나누어 가진 것에서 비롯되었다.

당시 조정의 원로이자 문장가인 서거정(徐居正)이 장편의 7언(言) 고시(古詩)를 지어 축하하였다. 그 당시 어지러운 사회상(社會相)을 바로 잡고 생활의 규제를 담은 계안(契案)을 만들어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다.

권영건 보도부장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우향계에 관한 학술 발표



(사)경북유교문화원이 주최하고 성균관 유도회경북도분부와 우향계발전위원회가 공동 후원하는 “우향계(友鄉契)의 계승과 역사적 위상”이라는 주제로 학술발표가 5월 4일 오후 2시 경북유교문화회관 교육관 4층에서 안동의 문중대표, 유림, 단체장, 시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정소영 사회자의 진행에 따라 개최된 이날 발표회는 본 행사에 앞서 박진숙 경국대 교수가 “꽃바람” 등 주옥같은 노래 두 곡을 선사하여 많은 박수를 받기도 했다.

이어 국민의례, 내빈소개, 인사말, 격려사, 축사, 각 문중대표 인사말 등의 순으로 이어졌다. 행사장 안에는 각 문중대표와 각계각층에서 보내온 대형화환이 50여 개에 이르고 있었다.

내빈으로 김종길 박약회중앙회장 및 학봉중손, 권종찬 병곡중손, 권창용 춘우제중손, 류창희 서애중손, 이목 윤계중손, 권용철 충계중손, 장성진 경당중손, 구성보 백담중손, 광대한 포산중손, 변성열 간계중손, 김해일 양소당중손, 이재업 성균관 유도회 경북도분부 회장, 권용주 우향계발전위원회장, 박원갑 전 경북도향교재단 이

사장, 이도희, 이종묵 고성이씨 전 대종회장, 이수웅 고성이씨 참판공파중종회장, 이삼열 고성이씨 용헌공중종회장, 권기갑 안동권씨대종회 부회장, 장인진 삼무회 회장, 이종섭 안동향교 전교, 한기학 박약회 안동지부회장, 남시창 영양남씨 안동대종회장, 권오의 안동권씨 대종회안동사무국장, 배영동 흥해배씨 경북대 교수, 노동영 안강노씨 대종회부회장, 조재성 안동청년 유도회장 등이다.

내빈소개가 끝나자 이재업 성균관유도회경북도분부회장이 대회사를, 권용주 우향계발전위원회장이 격려사를 한 후 김종길 학봉중손, 권기갑 대종회 부회장, 이수웅 고성이씨 참판공파중종회장이 각각 축사를 하였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유계(儒契)인 우향계는 1478년(성종 9년) 안동권씨 3명, 고성이씨 1명, 영양남씨 4명, 흥해배씨 4명, 안강노씨 1명 등 5개 문중 13명이 뜻을 모은 이래 550여 년의 세월을 단 한 번의 끊어짐 없이 후손들이 훌륭한 선조들의 업적을 이어 오고 있다. 처음 우향계로 출발하여 진술계(眞率契), 세호계(世好契), 수호계(修好契)로 이름이 바뀌기도 했으

나 끊임없이 명맥을 이어간 548년의 전승 기록을 한국 향촌 지정사 및 사회사에서 그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위대한 문화적 유산이라고 김주부 경북 삼주박물관 학예연구사(박사)는 지적한다.

우향계 13명은 세조의 왕위 찬탈에 반대하여 벼슬길을 버리고 은둔한 지사(志士)들로 단종을 폐위(廢位)하고 등극한 세조에 불만을 가졌던 안동 출신들의 사족들이다. 1986년 우향계축(友鄉契軸)이 보물로 지정되었으며 추후 정리한 우향계안도 2001년 경북도 유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 이번 학술대회는 우향계의 형성과 발전 과정 그리고 역사적 의미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학술 발표자와 제목은 다음과 같다 (1) 임노직(한국국학진흥원 전임연구원) - 안동 정신의 가치 지향성과 현재적 의의 (2) 황만기(국립경극대 연구교수) - 흥해배씨 안동 일화와 우향계 계승 (3) 남재주(한국국학진흥원 전임연구원) - 영양 남씨와 안강노씨의 우향계 활동 (4) 김주부(삼주박물관 학예연구사) - 안동 고성이씨와 안동권씨 집안의 우향계 전승 이다.

지방선서가 다가오자 안동시장 예비후보로 활약하고 있는 권기장, 권광택, 김의승 등 3명이 행사장에 와서 참석자들과 일일이 악수를 하면서 인사를 나누기도 했다. 학술 발표가 끝나자 단상위에선 주회 측과 발표자와 함께 단체로 기념촬영을 하였다. 이날 참석자들이 입장할 때 접수처에서 적어준 이름은 주회 측이 명첩(名帖)을 만들어 행사 때 초청한다는 것이다.

주회 측은 참석자 전원에게 “우향계의 계승과 역사적 위상”이라는 책 1권과 타월 1장, 카스테라 빵 1통씩을 선물로 각각 나누어 주었다.

권영건 보도부장

살아보니 결국 마음이 먼저였다

-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 -

권원희 (한국평생직업교육원 원장/36세 복아공파)

마음이 바라보는 세상

세상은 그대로인데 마음에 따라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집니다. 어떤 날은 같은 풍경도 감사로 보이고, 또 어떤 날은 무거운 짐처럼 느껴집니다. 사람들은 자극적인 말보다 인간관계, 삶의 흐름, 마음의 변화에 더 오래 머물습니다. 살아보니 사람은 결국 마음이 움직여야 다시 살아갈 힘도 생깁니다.

화엄경(華嚴經)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若人欲了知三世一切佛應觀法界性一切唯心造. 모든 것은 오직 마음이 만든다는 뜻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면 하루의 무게도 달라집니다. 같은 하루를 살아도 어떤 마음으로 시작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하루가 됩니다. 삶의 방향도 결국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마음의 방향이 삶의 방향

현실은 늘 완벽하지 않습니다. 계획대로 되지 않는 일도 많고, 인간관계 속에서 상처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같은 상황 속에서도 어떤 사람은 다시 일어설 이유를 찾고, 어떤 사람은 끝없이 원망 속에 머물습니다. 살아보니 결국 행복은 환경보다 마음의 방향에 더 가까웠습니다.

잘못된 일이 생겨도 무조건 남 탓부터 하기보다 먼저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잘못되어도 내 탓이라는 말은 스스로를 괴롭히자는 뜻이 아닙니다. 내 삶을 내가 선택하고 책임지는 태도에 더 가깝습니다. 남을 원망하는 데 시간을 쓰기보다 오늘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힘, 그것이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힘입니다.

자기 그릇을 아는 삶

사람은 자기 그릇만큼 담고, 자기 그릇만큼 감당하며 살아갑니다. 그릇보다 큰 욕심은 마음을 흔들고 삶을 지치게 만듭니다. 자기 삶의 속도를 알고 자신에게 맞는 기준을 세우면 훨씬 편안해집니다. 남과 비교하며 불안해하기보다 내 삶을 단단하게 세워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자는 말했습니다. 聖人之心靜乎天地之鑑也 萬物之鑄也. 고요한 마음은 천지의 거울이요, 만물의 중심이라는 뜻입니다. 결국 자기경영이란 거창한 성공보다 자기 삶의 방향을 잃지 않는 데 있는지도 모릅니다. 해야 할 일은 묵묵히 해 내되, 흔들리지 않는 자기 기준을 세우는 것. 살아보니 진짜 강한 사람은 큰소리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삶을 스스로 책임질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그릇을 아는 것, 그것이 가장 단단한 자기경영입니다.

조금씩 넘치는 삶

돈이든, 마음이든, 시간이든 늘 부족함만 바라보면 삶은 메말라갑니다. 그러나 조금의 여유가 있으면 감사가 생기고, 그 여유는 자연스럽게 나눔으로 이어집니다. 내 그릇이 넘치면 나누고, 그만큼 더 행복하고 감사해집니다. 결핍의 눈으로 보면 늘 부족하고, 풍요의 눈으로 보면 늘 감사할 것이 있습니다.

행복은 거창한 곳에 있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를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살아보니 결국 마음이 먼저였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방향이 내 삶의 얼굴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

맺음말 - 마음의 방향이 삶의 얼굴을 만든다

삶은 늘 마음먹은 대로만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살아보니 결국 중요한 것은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가느냐였습니다. 세상을 희망으로 바라보면 다시 살아갈 힘도 생기고, 감사할 이유도 보입니다. 조금씩이라도 넘치는 삶을 살아야 나눌 수 있고, 그 나눔은 다시 행복으로 돌아옵니다.

마음의 방향이 곧 인생의 방향입니다. 오늘 하루,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나답게, 너답게, 우리답게, 정답게, 아름답게, 동반성장합시다!

2026 병오년 제71회 부호장공파 경로잔치 개최

부호장공파(副戶長公派: 회장 권원종)가 주최하는 “2026 병오년 제71회 경로잔치”가 5월 20일 오전 11시 안동시 어귀골길 37-6 (태화동) 일원정(一源亭)에서 고문, 원로, 족친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하였다.

어젯밤부터 내린 여름비가 아침까지 계속되는 바람에 족친들의 참석률이 다소 저조했다. 이날 역대 파종회장을 역임했던 권병균, 권영건, 권주연 등 3명의 고문과 원로들 그리고 오는 6.3 지방선거에서 무투표로 당선된 권기윤 안동시의회 예비후보가 참석, 인사말까지 하는 등 자리를 빛내주었다.

권용덕 사무국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경로잔치는 국민의례, 시조묘소 및 파종위패 망배, 상음례, 회장인사, 보חק강좌 등의 순으로 이어졌다. 권원종 파종회장은 “오늘 비가 내리는 바람에 족친들의 참석률이 저조하지만 앞으로 족친들이 더 건강하시기를 기원 하겠다”고 말했다.

곧 이어 이재만 식약처 식중독 전문 강사가 “식중독예방 및 위생건강”에 관하여 보חק강좌를 40여 분 간 강의를 하여 많은 박수를 받았다. 강의 내용을 요약하면 식중독은 식품 섭취로 인하여 인체에 유해한 세균이나 바이러스, 기생충, 곰팡이 등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발열, 복통, 설사, 구토, 두드러기 등을 나타내는 급성질환증상을 말한다. 식중독의 원인 균은 병원성대장균, 노로 바이러스, 황색포도상구균, 보툴리눔 독을 들 수 있다. 식중독 예방으로는 비누를 사용하여 30초 손 씻기, 물 끓여 마시기, 채소, 과일은 깨끗한 물로 세척하기를 당부했다. 또 어패류는 생식을 삼가고 중심온도 85도C, 1분 이상 가열하고 조리도구는 끓이거나 소독해야 한다. 이 밖에 주변 환경은 청결히 할 것 등을 당부했다.

이재만 강사는 경북대학교보건대학원

을 졸업, 안동시보건소 건강관리과장으로 정년퇴임 한 후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청 식중독예방 전문 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보חק강좌가 끝나자 점심은 화기에애한 분위기 속에서 육회비빔밥을 비롯하여 문어, 닭 편육, 떡, 수박, 참외, 토마토, 소주, 맥주, 음료수 등 푸짐한 음식이 제공되었다. 육회비빔밥은 권용덕 사무국장 부인 등 부인회원 3명이 정성을 들여 만들었다.

권원종 회장은 참석한 족친들에게 기념 타월 1장씩을 선물로 나누어 주었다.

권영건 보도부장

2026 제33차 재안파종회장친목회 5월 격월회의 개최

재안파종회장친목회(在安派宗會長親睦會: 회장 권영건)는 “2026년 제33차 5월 격월회의”가 5월 22일 오후 6시 30분 안동시 북문동 ‘부숙 한정식’에서 회원 9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하였다.

참석한 회원은 권계동, 권주연 두 고문을 비롯하여 권영건 친목회장, 권영준 동정공파회장, 권기수 별장공파회장, 권종근 시중공파회장, 권순복 전 정조공파회장, 권오의 대종회안동사무국장, 권기원 친목회 사무국장 등 9명이며 권기호 고문, 권오춘 전 부정공파회장, 권영택 전 정조공파회장 등 3명은 개인 불일 때문에 참석하지 않았다.

권기원 사무국장의 사회에 따라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 권영건 친목회장은 인사말에서 “그동안 더위가 계속되다가 어제 비가 내리는 바람에 날씨가 시원해 졌는데 오늘 맛있는 저녁을 많이 드실 것”을 당부했다. 또 “6.3 지방선거가 본격적으로 접어들자 분위기가 달아오르고 있다”고 했다. 이 자리에서 권오의 대종회 안동사무국



장은 “이달 27일 오전 11시 서울 디노체컨벤션웨딩홀에서 대종회 정기총회가 있는데 안동에서 임원 30여명이 서울에 올라간다”고 했다. 이와 더불어 오는 6월 10일 경기도 구리시 동구릉 내 현릉(顯陵)에서 현덕왕후(顯德王后) 기신제향(忌辰祭享)이 봉행되는데 많은 참석을 부탁 한다”고

당부했다. 이 친목회는 홀수 달 넷째 주 금요일이 정일(定日)로 두 달에 한 번씩 모여 회의를 가지며 회원은 12명이다. 이날 화기에애한 분위기 속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헤어졌다.

권영건 보도부장